

초록번호 09-1

제 목	국 문	40세 이후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	
	영 문	A nested case-control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the death after 40 years old in Korea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종구, 김춘배, 고상백, 강명근, 박기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Jong Ku Park, Ki Ho Park, Choon Bae Kim, Sang Bak Koh, Myung Guen Kang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i>	
분 야	역학	발 표 자	박기호(전공의)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1998년 10월		
<p>1. 연구 목적</p> <p>공·교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자들 중 40세 이후에 사망으로 인해 자격상실된 집단과 이들과 연령과 성으로 짝짓기하여 구축한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하여 40대이후 한국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각 연령집단별 다빈도 사인 질환을 밝히고 둘째, 연령별로 사망에 영향을 준 요인을 알아보았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군은 공·교의료보험의 1992년도 건강검진 수검 피보험자와 1993년 건강검진 수검 피부양자 중 검진 당시 만 40세 이상이며 1997년 현재 사망의 사유로 자격상실된 19,258명(피보험자;5,716, 피부양자; 13,542명)이며, 대조군은 상기 검진 수검자 중 1997년 12월 31일 현재 계속적으로 자격관리를 받고 있는 681,249명에서 연령과 성을 대응조건으로 하여 사망자군과 짝짓기한 19,258명이였다.</p> <p>이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97년 12월 현재까지의 사망여부로서 장제비 지급신청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장제비 지급신청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망원인은 통계청의 사망신고 파일과 공단의 최근 입원의료이용파일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는 피보험자 및 건강진단자료 파일에 포함된 건강진단 결과와 검진표에 포함된 건강진단 문진표 중에서 선정하였다. 사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망여부를 종속변수로하여 X^2-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p>			

시행하였다. 추적기간이 짧아 만성질환에 이환된 연구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질환의 이환이 사망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따라 93년-97년 전체자료를 이용한 분석 외에 사망요인이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96년-97년 자료만을 이용한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여 두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3. 연구 결과

통계청의 사망신고 파일과 최근 입원의료이용파일을 이용하여 공단의 장제비 지급신청화일을 보완한 결과 '불명확'과 '진단명 없음'을 27.4%에서 9.1%로 줄일 수 있었다.

최근 5년간('93-'97년)의 연령별 주요사인을 19대 사인분류 따라 제시하면, 40대, 50대, 60대 중 64세까지의 연령군에서는 신생물, 순환기계질환,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의 순이었다. 65세-69세 연령군에서의 주요사인은 신생물, 소화기계질환, 순환기계질환의 순이었고, 70대 이후의 연령군에서는 순환기계질환, 신생물, 소화기계질환의 순이었다.

10세간격으로 층화한 연령집단 별로 단일변량 분석을 시행하고 이 중 하나이상의 연령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변수들을 로지스틱회귀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망과 정상관 관계인 변수들의 '93-'97년 자료와 '96-'97년 자료에서 사망에 대한 비차비는 각각 수축기 고혈압 1.20, 1.22, 이완기 고혈압 1.14, 1.15, 고혈당 1.33, 1.36, 비정상 SGOT 1.33, 1.29, 요당 양성 1.43, 1.39, 요단백 양성 1.59, 1.55, 영양제나 보약복용 1.18, 1.12, 수혈 1.25, 1.24 등이었다. 흡연은 '안피움', '현재 흡연', '피우다 끊음'으로 나누었을 때 현재 흡연 1.99, 1.75, 피우다 끊음 2.03, 1.98이었다. 음주는 '거의 안마심', '가끔', '자주'로 나누었을 때 '가끔'은 의미있는 비차비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자주'는 각각 1.17, 1.14였다. 또, 사망과 역상관 관계인 변수들의 '93-'97년 자료와 '96-'97년 자료에서 사망에 대한 비차비는 높은 비만도 0.95, 0.96, 혈중 콜레스테롤치(경계역) 0.83, 0.83, 혈중 고콜레스테롤 혈중 0.90, 0.96, 커피음용(하루 1잔) 0.82, 0.82, 커피음용(하루 2잔 이상) 0.72, 0.72 등이었다.

4. 고찰

추적관찰기간이 4-5년으로 짧았다. 따라서 사망 관련요인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결과-원인 관계일 수 있다. 특히, 현재 흡연하고 있는 군보다 피우다 끊은 군의 사망 비차비가 더 크고 커피음용이 사망과 역상관관계였던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반해, 사망과 관련된 질환에 이환된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습관을 중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자료와 추적후반기 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수축기 고혈압, 이완기 고혈압, 고혈당, 비만도, 혈중 고콜레스테롤 혈중 등은 추적 후반기의 비차비가 더 크므로 이들 요인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결과-원인관계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